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임석희**

요약: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하여 지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접근방법 등의 한계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유효한 요인들을 단계적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주 여성의 연령과 본국에서의 직업 경력,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정생활의 적응 정도, 배우자의 직업과 연령, 한국으로 결혼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 국내의 한국인 및 출신국 친구, 주민모임에의 참여 여부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구사능력은 유효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효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 전 배경으로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지식 등이, 이주 후로 보면,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망이 지역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국제결혼, 이주자, 사회적응, 지역사회, 결혼이주여성

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이 본격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 시장 개방과 국내 노동력 구조의 변화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점차 그 존재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는 비단 노동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

어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국제결혼,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중반부터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김이선 등, 2007, 16).

이러한 변화는 오랜 기간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관념에 익숙한 한국인으로서의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충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폭과 더불어 그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은 물론 그들과의 관계 정립, 장래 한민족의 정체성 등이 당연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여러 이질적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

미의 '다문화주의'에서 비롯된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 다문화정책, 다문화센터 등 무수히 많은 '다문화' 용어들의 통용 속에는 국제적 인구이동에 의한 한국사회의 속성 변화와 대응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기 체류 혹은 거주 목적의 외국인의 전무 없는 대규모 유입의 일차적인 사회 문제는 '적응' 일 것이다. 이 '적응'은 단지 외국인 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주한 외국인은 당연히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에 봉착하여야 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인 역시 그들에 대하여 적응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주한 외국인의 본국 또한 유출 지역으로서 그 상황에 적응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지리학의 관점에서 인구현상으로서 인구이동이 갖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이주 당사자의 적응은 물론 인구가 유출된 지역(주민)은 유출지역으로서, 인구가 유입된 지역(주민)은 유입지역으로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관심의 초점도 이러한 '적응'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주 당사자의 한국사회, 좁게는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지금까지 국내 연구 역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적응의 문제는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한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영구거주보다 장기이긴 하지만 체류자의 성격이 강한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국내에 영구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적응 또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붓물을 이루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결혼이주가 급증하고 이주여성의 국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과 더불어 지리학, 인류학, 사회복지

지학, 가정복지학, 인구학 등 여러 분야에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들 연구는 대개 특정 출신국적이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몇몇 사례를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과정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실태 및 그와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구자순, 2007; 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윤형숙, 2004a, 2004b, 2009). 개개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이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대한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는 적응의 문제를 주로 남편 혹은 시부모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자녀양육 등 가족·가정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 공간적 스케일 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문제가 협소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양순미, 2006; 윤형숙, 2004b; 이해경, 2005; 정일선, 2006, 정천석·강기정, 2008). 물론 가족 관계, 가족 문화에 대한 적응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그보다 확대된 공간 스케일에서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적응이 곧 지역사회 적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셋째는 대부분 문화적 측면에서 적응과 갈등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 관습,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왔기 때문에 문화적 충돌에서 오는 적응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가 가정에 한정되지 않고, 설사 이주 초기에는 가족과 가정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생활공간이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된 공간 스케일에서 적응 문제를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구조를 포함한 생활세계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적응을 다루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개별 사례에 대한 면담 형식의 조사를 통하여 가정(home)이라는 공간적 스케일에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심리적 측면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전의 연구를 통해서 가정 이상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 실태를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에 유입된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거주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역사회 생활을 고찰하고, 공간적 요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는 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서 특히 공간적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란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거주비자 F-2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고, 그러한 상태로 2년 동안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할 경우 간이귀화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적취득 과정이 여전히 복잡하고 출신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이유로 F-2 비자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영주자격(F-2)의 조건이 종전 5년의 혼인 생활에서 2년으로 완화됨으로써 출신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영주자격을 얻기가 전보다 쉬워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류 자격과 최초 입국 시기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외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즉, 국적을 취득하여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된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혼인 이외의 통로로 국내이주 후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한 경우 등 모든 사례를 포함한다.

이주자의 이주사회 적응은 크게 심리적 적응과 사

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 생활,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이웃관계 등 지리적 환경 적응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이다. 연구방법은 이주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통계량 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지역사회 적응양상을 고찰하고, 분산분석 및 회기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적응의 개념과 이주자의 이주사회 적응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적응'의 개념

적응이란 용어는 생물학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적응은 생물이 서식 환경에 보다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생물학의 기본 개념이다. 다양한 생물 집단은 처해진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선택에 적합한 개체만이 살아남은 결과 서식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적응에 대한 철학과 방법론은 다르지만, 지리학자들에게도 인간-환경 관계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은 오래 전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Ghoshen, 1991).

한 개인이 기존의 문화에서 나와 새로운 문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적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의미로서 적응은 한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

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이재민·황선영, 2008).

적응에는 두 가지 차원의 과정이 있다. 하나는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적응이 한 개인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정천석·강기정, 2008). Berry(2005)는 이러한 적응은 외부의 요구에 대응하여 개인 혹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이며 개인과 그가 처한 환경 간에 적합(fit)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즉, 적응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가 처한 환경과 보다 비슷해지기 위한 변화(동화의 방식으로 인한 적응)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구자순, 2007). 실제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변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적응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이다(채병희, 2009). 이주에 의한 적응은 문화가 다른 두 집단이 접촉하게 되었을 때, 상호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주에 의한 적응은 접촉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안수영, 2008).

Ward and Kennedy(1994)는 이러한 문화적 전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 2가지 성분으로 구분한다. 심리적 적응은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심리적인 복리나 양호한 정신건강, 만족감을 말하며, 사회문화적 적응은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 일상적 생활 문제의 해결과 같이 새로운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의 습득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 적응 형태는 상호 관련되지만, 상이한 요인들에 의해 예측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다르다. 심리적 적응

은 스트레스와 극복이라는 틀로 잘 분석되지만, 사회문화적 적응은 사회적 학습-인지 틀과 보다 밀접하다(Neto, 2002). 즉, 심리적 적응이 심리 내적인 결과로서 개인적 문화정체성, 좋은 정신건강, 그리고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개인적인 만족감의 성취이라면, 사회문화적 적응은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심리 외적으로 가족과 직장 영역에서 일상적 문제들을 처리하는 능력이다(구자순, 2009; Berry *et al*, 2006).

이주자의 이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적응(adaptation) 이외에도 유사한 개념으로 조정(adjustment), 문화변용(acculturation), 동화(assimilation)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윤인진, 2003). adjustment는 한국어로 조정 혹은 적응, 순응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주민이 심리적으로 이주국가에서 편안하게 사는 정도를 말한다. 문화적응이나 문화변용, 문화접변 등으로 번역되는 acculturation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집단이 접촉하면서 생긴 문화적, 심리적 변화의 이원적 과정을 의미한다. 동화로 번역되는 assimilation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문화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에 합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동화는 이주민의 주체적 적응이 아닌 주류 사회(host society)에 의한 이주민의 수용(acceptation)이라는 개념이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Berry(1977)는 동화가 적응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adaptation은 이러한 유사하고 관련 있는 개념들을 통합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구자순, 2007).

2) 이주자의 이주사회 적응 요인

한 사람의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충격과 인식의 전환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적응에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는 것은 거주기간이다. 충격에서 벗어나 주변환경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정도는 이주사회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김영란, 2008). 거주기간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초기의 허니문 단계를 거쳐 실질적인 경험의 폭이 확대되면서 문화 충격으로 위축되는 단계와 다음에는 새로운 문화에서 서서히 적응하면서 회복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U자형 이론과 그와 반대로 이주초기 이주사회에 대해 낮설고 아는 지식이 별로 없이 지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응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된다는 이론이 있다(구자순, 2007).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이 증감함에 따라 사회문화적 기술들을 빠르게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든 동일한 거주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주자에 따라 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개인적 수준에서, 또 사회환경적 수준에서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자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개인적 수준으로 논의되는 적응의 변인들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경험, 의사소통기술, 자아정체성, 이주동기와 이주과정, 문화이해 및 문화수용, 출신국적 등이 있다. 적응을 새로운 환경에 대한 학습이라고 할 때, 이주자의 학습능력은 적응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경험, 의사소통기술, 등은 이 학습능력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언어습득과 읽기능력과 같은 의사소통기술의 획득은 그 자체가 이주사회에 대한 적응이기도 하지만, 적응을 위한 필수 도구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적응에 관한 연구사례들은 국제결혼한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결혼적응과 부부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많아 부부간에 적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김오남, 2006).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하나의 적응 변인이 될 수 있는데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채병희, 2009).

자아정체성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 이주자의 이주

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아정체성과 주변환경에 대한 인지와 대응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St-Hilaire (2002)의 멕시코 이주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완전한 동화와 모국 문화의 포기 이주사회 적응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주아동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듯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인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등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사회생활 적응을 힘들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적응의 문제는 이주사회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수용하려는 태도에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면 그만큼 적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이해와 문화수용은 이주자의 출신국적과 연관된다. 외모에서 차이가 많을수록, 이주사회와 출신모국 간의 문화적 거리가 멀수록 문화적 이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사례를 보면,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는 아시아계 청소년이 백인계와 흑인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순희, 2009). 결혼동기와 결혼이주과정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매매혼인 이주여성과 정상적인 결혼이주여성 간에는 적응에 차이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주자의 이주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범주의 변인으로는 가족의 지지와 상호작용,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 및 사회적 연결망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어떤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체계, 즉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생태적 환경 내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일컫는다. 여기서 사회적 환경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 이웃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체제와 복지기관, 이주자지원센터, 교육기관, 상담전문가 등

을 포함하는 공식적 체제로 구성된다(장인협·오세란, 1996). 이러한 공식·비공식 체제를 통한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적응에 필요한 정보나 물질과 같은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족의 지지와 상호작용은 가족적응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적응에 긴요할 것이다.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사례를 보면, 가족적응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적응이 사회적응에 대한 설명변인이 된다(정현주·이주희, 2009, 177-178).

사회적 연결망(혹은 관계망)은 사회적 지지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나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 등 지지의 양적 크기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개념이기 때문이다(이재민·황선영, 2008). 그러나 사회적 연결망이 주류 사회의 사회적 지지체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이주자와의 사회적 연결망은 연쇄적인 인구 이동(chain migration)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며(이희연, 2003), 이동에 수반하는 위험을 감소 시킴으로써 이주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주 후에도 이주자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사회 정착과 적응의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자본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修琢, 2007).

3.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 분석

1)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그 적응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는데 초점이 있다. 분석 자료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12월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획득하였으며, 가능

한 전국적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총 402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조사하여 그중 유효설문 391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방문하여 면접 또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유효설문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국가 분포는 중국 37.0%, 베트남 33.7%, 필리핀 14.2%, 캄보디아 4.7%, 일본 4.1%, 기타 국가 6.2%의 순이다.¹⁾

분석방법은 각 조사항목에 대한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실태를 기술적 측면(descriptive aspect)에서 살펴본 다음, 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설명요인(독립변수)과 지역사회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3개 종속변수(지역사회 생활, 공간인지와 공간활동, 이웃관계)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regression)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결혼이주 전 배경 및 이주의 과정, 가정생활,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자아정체성 범주의 요인들이 투입되었으며, 범주형 자료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종속변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지역사회 생활, 공간인지와 공간활동, 이웃관계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부호화하여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1점에서 5점으로 높을수록 지역사회

표 1. 조사지역 및 설문조사 수

	총 설문조사 수	유효설문 수
서울	63	60
경기	60	60
대구	78	74
경북	72	71
광주	55	54
전남	74	72
계	402	391

표 2. 조사항목 및 척도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설명요인(독립변수 항목)	
사회·인구학적 특성	거주지, 거주기간, 출신국가, 연령, 학력, 현재 직업, 체류자격, 한국어 구사능력
결혼이주 전 배경 및 이주과정	이주 전 거주지, 본국에서의 직업, 결혼이주의 본인의사 반영도, 이주 준비기간, 배우자 만남 유형
가정생활 및 배우자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적응도, 배우자의 연령, 직업, 학력
문화이해 및 수용	이주 전 한국 지식, 이주 전 한국 이미지,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교육, 한국인에 대한 문화적 친밀감
자아정체성	출신본국에 대한 자부심, 지역주민의식, 한국인의식, 본국인의식, 정체성 혼란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연결망	친한 지역주민, 국내 한국인 친구, 국내 출신국 친구, 참여 지역주민 모임, 도움 받는 지원단체
지역사회의 적응 정도(종속변수 항목)	
지역사회 생활	기후 및 자연환경, 주거시설 및 주변환경, 소비 및 여가시설에 대한 적응과 행정기관·의료기관의 이용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시장·백화점·대형마트,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학교(초·중·고)의 위치에 대한 인지와 이용
이웃관계	이웃과의 의사소통 정도, 이웃의 경조사 참석 여부,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은 경험 유무, 이웃과의 친밀도(경제적 도움)

표 3.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목	빈도	비율(%)	
출신국가	중국	143	37.0
	베트남	130	33.7
	필리핀	55	14.2
	일본	16	4.1
	캄보디아	18	4.7
	기타	24	6.2
연령	29세 이하	185	49.7
	30~39세	142	38.2
	40~49세	39	10.5
	50~59세	6	1.6
학력	무학	2	0.5
	초등학교	29	7.6
	중학교	85	22.3
	고등학교	174	45.5
	대학교	92	24.1
입국년도	2008년	85	24.3
	2007년	59	16.9
	2006년	61	17.4
	2005년	36	10.3
	2004년 이전	109	31.1

체류자격	국적 취득	88	23.7	
	국민의 배우자	258	69.5	
	영주권자	16	4.3	
	기타	9	2.4	
취업상태	농어업	41	11.3	
	단순생산직	19	5.2	
	단순사무직	7	1.9	
	전문직	5	1.4	
	판매유통직	3	0.8	
	서비스직	2	0.6	
	강사(영어 등)	17	4.7	
	미취업	194	53.6	
한국어 구사능력	말하기	매우 어려움	43	11.5
		조금 어려움	131	34.9
		보통	149	39.7
		어렵지 않음	33	8.8
		전혀 어렵지 않음	19	5.1
	듣기	매우 어려움	41	11.5
		조금 어려움	107	29.9
		보통	137	38.3
		어렵지 않음	52	14.5
		전혀 어렵지 않음	21	5.9
	쓰기	매우 어려움	54	15.4
		조금 어려움	127	36.2
보통		108	30.8	
어렵지 않음		35	10.0	
전혀 어렵지 않음		27	7.7	

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2) 조사자료의 기술적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령은 29세 이하가 49.7%, 30대 38.2%로 20~30대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87.9%를 차지한다. 학력은 고등학교가 45.5%로 가장 많고 대학교도 24.1%나 되어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국에 입국한 연도는 조사시점인 2008년이 24.3%, 2007년 16.9%, 2006년 17.4%, 2005년 10.3%, 2004년과 그 이전이 31.1%로 조사대상자에 한정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체류자격, 즉 비자유형을

보면, 국민의 배우자(F2)가 69.5%, 국적취득자가 23.7%, 영주권자가 4.3%, 기타 2.4% 등으로 국적취득자가 생각 외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3.6%가 현재 한국에서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업종은 농어업이 11.3%로 가장 많고 단순생산직이나 단순사무직이 7.1%, 영어 등 강사와 전문직이 6.1%로 조사되었다. 한국어 구사는 말하기와 듣기, 쓰기 모두 40~50%가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반대로 결혼이주여성의 40~50%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기, 듣기, 쓰기 중에서는 쓰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표 4. 결혼이주 전 배경 및 이주과정

결혼이주 전 배경			결혼이주과정		
		비율(%)			비율(%)
이주 전 거주지역	대도시	21.0	배우자	다른 목적으로 한국 입국 후 직접 만남	2.6
	중도시	23.7		본국에서 직접 만남	21.6
	소도시	18.4		제3국에서 직접 만남	1.3
	농어촌	37.0		본국에서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소개	14.6
이주 전 생활수준 (경제적 형편)	매우 빈곤	3.9	결혼중개 업체의 영향	한국에서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소개	10.2
	다소 빈곤	21.3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37.0
	보통	53.0		종교단체를 통해	6.8
	다소 풍족	11.3		기타	6.0
이주 전 직업	농어업	13.4	결혼이주 결정의 본인 의사	전적으로 영향 미침	15.5
	단순생산직	20.7		상당한 영향 미침	12.4
	단순사무직	8.8		보통	31.8
	전문직	6.5		별로 영향 없었음	22.5
	판매유통직	9.3	한국 이주 준비기간	전혀 영향 없었음	17.8
	서비스직	9.3		전혀 반영되지 않음	2.4
	공무원	0.5		판매유통직	9.3
	학생	9.8		다소 반영	26.9
이주 전 해외 방문 경험	없음	85.8	전적으로 반영	20.5	
	1~2회	11.4	1개월 미만	4.5	
	3~5회	2.6	1~3개월	28.5	
	6회 이상	0.3	3~6개월	27.7	
			6~12개월	13.9	
			1년 이상	25.3	

(2) 결혼이주 전 배경 및 이주과정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60% 이상이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등 도시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촌에 살았던 결혼이주여성은 관념적으로 생각하듯이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주관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본국에서의 경제적 형편 역시 매우 빈곤 3.9%, 다소 빈곤 21.3%로 빈곤하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25.2%에 그쳐 본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빈곤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절반 이상이 미취업 상태이지만, 본국에서는 80%에 가까운 이주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농어업에 종사했던 비율(13.4%)도 현재 한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11.3%)에 비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물

론 단순생산직에 종사하였던 비율이 20.7%로 가장 높으나, 그 외 단순사무직, 전문직, 판매유통직, 서비스직, 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사대상자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농어촌 출신에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무직 상태의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으로 결혼이주하기 이전에 출신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도 15% 가까이 된다.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도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가 37.0%로 가장 많지만,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국 또는 제3국에서 직접 만나거나(22.9%), 본국이나 한국의 가족 혹은 주변사람의 소개로 만난 경우(24.8%)도 적지 않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에도 중개업체가 배우자의 선택에 상당한 정도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27.9%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40.3%로 상당히 높다. 한국으로 결혼이주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24.7%로, 반영되었다는 비율 47.4%에 비해 훨씬 낮다.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이주의 결정이 비교적 자기주도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이주 준비기간은 60% 이상이 6개월 이하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3) 문화이해 및 수용

문화이해 및 수용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 전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한국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통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가? 한국에 대하여 이주 전 본국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등을 조사하였다. 한국에 대한 지식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60% 이상이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조금 알았던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는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이주여성의 50% 이상이 한국에 대해 주로 영화나 음악 등 문화매체와 언론,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주 전 한국에 대한 본국에서의 교육도 50%가 넘는 결혼이주여성이 조금 받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자세히 받았다는 이주여성은 불과 2.3% 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나 대중음악 등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았을 뿐이다. 학교 교육이나 친지나 주변사람을 통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 이주 전 한국에 대해 이주여성 대부분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가졌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물질문화가 발전했다는 이미지의 비율이 상

표 5. 이주 전 한국 지식

항목		비율(%)
이주 전 한국 지식	전혀 몰랐음	16.1
	조금 알았음	46.8
	보통	28.1
	많았음	7.5
	아주 많았음	1.6
이주 전 한국 지식의 주요 통로	학교 교육	15.3
	대중매체	16.9
	문화매체	36.5
	한국제품·기업	4.2
	친지·주변사람	19.3
	한국방문경험	2.9
	기타	4.8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교육	전혀 받지 못함	8.9
	받지 못함	17.5
	그저 그랬음	19.3
	조금 받음	52.0
	자세히 받음	2.3
한국인에 대한 문화적 친밀감	전혀 없음	4.5
	없음	10.1
	보통	41.9
	약간 있음	36.9
	매우 많음	6.6

표 6. 이주 전 한국 이미지

(단위: %)

구분	경제적으로 발달	고용기회 많음	정치적으로 안정	사회복지 수준 높음	물질문화 발달
전혀 그렇지 않다	1.0	1.3	2.4	2.1	1.1
그렇지 않다	4.7	10.1	12.8	5.1	4.7
보통	21.5	31.0	33.8	20.5	20.1
그렇다	57.5	46.8	41.8	53.1	50.7
매우 그렇다	15.2	10.8	9.3	19.2	23.5

표 7. 가정생활 및 가족과의 관계

(단위: %)

구분	가정생활 만족도	가족과의 의사소통	집안일 어려움	자녀양육 어려움	가족생활 문화 적응	생활형편 어려움
매우 어려움(매우 불만족)	2.1	2.9	1.8	10.0	3.5	6.1
어려움(불만족)	6.3	8.8	9.1	15.5	9.7	18.2
보통	42.7	44.9	45.6	43.3	43.5	42.5
어려움 없음(대체로 만족)	35.6	32.5	36.5	15.5	37.4	28.2
전혀 어려움 없음(매우 만족)	13.4	10.9	7.0	5.4	5.9	5.0

대적으로 더 높다.

(4) 가정생활

선행연구들은 이주여성의 가정생활이 사회적응의 중요한 변인의 하나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49.0%는 현재의 가정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불만족하다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가정생활의 세부적인 사항별로 보면, 가족과의 의사소통이나 집안일, 가족생활문화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별 어려움이 없거나 적응을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 생활형편 등에서 어렵다고 응답한 이주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보다도 자녀양육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 이주여성이 전체의 35.8%에 달하지만, 집안일의 어려움이 많다고 한 이주여성은 10.9%에 불과했고, 생활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3.2%,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11.7%에 그치고 있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많다'는 비율은 다른 부문의 어려움에 비해 3배 이상 되는 수치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가정생활에는 그런대로 만족하고 적응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자녀양육에 큰 곤란을 겪는 이주여성이 상당함을 말해준다. 이는 이주여성의 지원에 어떤 부문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

배우자의 연령은 20~30대가 41.6%, 40대가

표 8. 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목		빈도	비율(%)
연령	28~39세	148	41.6
	40~49세	181	51.1
	50세 이상	26	7.3
학력	무학	2	0.5
	초등학교	19	5.2
	중학교	53	14.6
	고등학교	183	50.3
	대학교 이상	107	29.4
직업	농어업	67	17.5
	단순생산직	103	26.9
	단순사무직	24	6.3
	전문직	40	10.4
	판매유통직	19	5.0
	서비스직	22	5.7
	공무원	16	4.2
	학생	1	0.3
	미취업	30	7.8

51.1%, 50대 이상이 7.3%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분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표 3 참조). 배우자의 학력은 고등학교가 50.3%로 가장 많고 대학교 이상이 29.4%로 상대방인 결혼이주여성과 비슷한 교육수준 분포를 가졌다. 배우자의 직업은 단순생산직이 26.9%로 가장 많았지만 농촌으로 시집온 동남아시아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서 연상하는 것과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의 비율은 17.5%에 그쳤다.

(5) 자아정체성

연구대상의 이주여성들은 정체성 면에서 한국인이라는 의식보다 출신본국인이라는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한국인이 아닌 여전히 본국인'이라는 의식이 40%를 상회한다. 또한 출신본국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편이다. 본국에 대한 자부심이 많다는 경우가 50%를 넘는다. 반면에 본인이 '이제는 한국이다'는 의식은 30% 수준으로 다소 낮다. '한국인도 아니고 본국인도 아니다'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비율이 높지 않다. 본국인으로서 여전히 강한 정체성을 갖는 이주여성과 이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이주여성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는 응답 비율이 40% 가까이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7%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인에 대한 애착에서도 나타나는

데, '많다'는 경우 39.6%인 반면, '적다'는 반응은 7.4%에 불과하다. 적어도 30% 이상은 한국사회,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출신국적의 포기에 대해서는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출신본국의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23.8%, 부정적 반응이 29.1%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거주, 한국인에 대한 애착 정도에 비하면, 현 거주지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이다. 지역주민 의식을 갖는 경우는 28.8%이지만, 지역주민의식이 없다는 반응은 34.7%이다. 지역주민의식을 갖는 비율은 오히려 자신을 한국인으로 의식하는 비율에 비해서 다소 낮다. 그러나 현거주지에 대한 애착이나 현거주지에서의 계속 거주 의사 비율은 이보다 높다. 특히, 현거주지 계속 거주 의사를 가진 비율은 43.3%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도 포함되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항목별 응답분포는 한국으로 결혼 이주하여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표 9. 출신본국과 한국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본국에 대한 자부심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출신국적 포기의사	한국인에 대한 애착	지역주민 의식	현거주지에 대한 애착	현거주지 계속거주 의사
매우 적음	1.1	1.6	6.7	1.3	9.4	2.1	5.0
적음	5.3	5.8	22.4	6.1	25.3	5.8	12.7
보통	38.7	53.7	37.1	53.1	36.4	54.5	39.1
많음	30.8	31.2	23.7	31.6	15.6	28.3	30.9
매우 많음	24.2	7.9	10.1	8.0	13.2	9.3	12.4

표 10.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나는 여전히 본국인	나도 이제 한국인	나는 한국인도 본국인도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8	3.9	28.5
그렇지 않다	16.3	28.6	30.7
보통	36.8	36.5	27.9
그렇다	36.3	22.6	9.9
매우 그렇다	5.9	8.4	3.0

인식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이르지 않은 이주여성들이 있음을 함의한다.

(6)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여기서는 사회적 지지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수와 참여하고 있는 주민모임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이주여성의 2/3 가량이 1개 이상의 지원단체 또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2~3개의 지원단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20.7%에 이르렀다. 그러나 약 1/3은 전혀 이용하는 지원단체나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 주민모임이 없는 경우도 전체의 59.8%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체제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연결망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같은 출신국의 친구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한국인 친구는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친하게 지내는 지역주민은 몇 명이나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한국인 친구가 47.6%가 1명 내지 2명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이주여성은 15명의 한국인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출신국가 친구는 45.0%가 1~3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같은 출신국가의 친구가 10명이 넘는 경우도 25%가 넘었다. 한국인 친구보다 같은 출신국가의 친구가 더 많은 셈이다. 친하게 지내는 지역주민 역시 없는 경우도 32.2%가 되었다. 1~2명 32.2%, 3~5명 24.1%로 이주여성의 50% 가량은 1~5명의 친하게 지내는 지역주민이 있다.

(7) 지역사회 생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가는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에서부터 기후 및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 주거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 소비 및 여가시설에 대한 적응, 행정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적응 등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 생활에 대부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연구대상자 중 12.4%만이 '불편하다'고 답하였으며, 반면에 38.3%는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기후나 자연환경, 주거시설과 주변환경 등에는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에서는 적응 어렵다는 경우가 각각 5.9%, 5.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나 여가시설,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 이용에서는 상황이 다소 달라진다. 소비나 여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주여성의 비율이 9.9%로 높아진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용에서는 이 비율이 18.3%, 36.8%로 크게 높아진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접하지 않은 영역의 지역사회 생활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비교적 잘 적응하지만, 행정기관 이용이라든가, 의료기관 이용 등 물리적 환경·시설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여야 하고 제도를 알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8) 공간인지와 공간활동

이주여성의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생활에

표 11. 지역사회 생활

(단위: %)

구분	지역사회 생활 전반	기후·자연 환경 적응	주거·주변 환경 적응	소비·여가 시설 이용	행정기관 이용	의료기관 이용
매우 어려움	2.6	1.8	1.0	3.1	5.4	6.1
어려움	9.8	4.1	4.4	6.8	16.1	12.2
보통	49.3	34.7	40.3	47.9	48.1	45.0
어렵지 않음	29.3	50.0	47.8	36.2	25.8	31.0
전혀 어렵지 않음	9.0	9.3	6.5	6.0	4.6	5.8

필요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초중등학교, 행정기관, 의료기관, 시장 등의 위치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에 대한 이들의 인지 정도와 공간활동 측면에서 단독으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에 대한 인지였다. 이 부분에서 연구대상자의 46.1%가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인데, 이 역시 41.4%의 이주여성이 잘 안다고 대답하였다.

이주여성의 공간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행정기관과 초·중·고등학교의 위치, 버스 및 지하철 노선이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거나. 매우 잘 안다’는 비율은 30%대로 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에 대한 공간인지도보다 다소 낮다. 이는 앞의 질문이 개략적인 공간적 인지라면, 그보다 상세한 공간인지를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장소에 대한 공간인지는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의 위치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은 47.7%의 이주여성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단 19%만이

‘그렇지 않다’ 라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이 비율은 구체적 장소에 대한 공간인지도와는 다소 상치된다. 이것은 거주하는 지역의 상세한 지리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공간활동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 이동을 위한 지리적 지식에 대하여서도 이주여성의 75.9%가 물어서 이동할 정도의 지리적 지식 또는 그 이상의 지리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답하고 있다.

(9) 이웃관계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은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동체의식이 약화되더라도 이웃과의 좋은 관계는 지역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낯 설은 한국 땅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우호적인 이웃은 원만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이웃과의 의사소통에서부터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하는가? 이웃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가?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친한 이웃은 있는가? 등 4개의 항목에 걸쳐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의 한 부분으로서 이웃관계를 조사하였다.

이웃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약 40%의 이주여성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하였다. 물론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전혀 못한다는 이주여성도 22.7%에 이른다. 이웃의 경조사 참석에 대해서는 참석한다는 비율이 약 30% 수준으로 떨어지고 반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8.5%로 올라간다.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점 더 친밀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34.9%, 있는 경우가 28.0%로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의 응답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즉, 있다는 이주여성은 연구대상자의 17.5%에 불과하고, ‘그런 이웃이 없다’라는 연구대상자가 57.4%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금전적 거래까지 하기

표 12. 거주지에 대한 지리적 지식과 이동능력

항목		비율(%)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매우 어려움	5.8
	어려움	13.2
	보통	33.3
	어렵지 않음	39.2
	전혀 어렵지 않음	8.5
현 거주지역의 지리에 대하여	전혀 모름	4.7
	잘 모름	11.8
	보통	42.0
	알고 있음	35.4
	잘 알고 있음	6.0

표 13. 지역사회 공공시설에 대한 인지

(단위: %)

구분	버스·지하철 노선	상업시설의 위치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의 위치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학교의 위치 (초중고)
전혀 모름	7.3	3.1	9.0	6.5
잘 모름	17.5	11.8	18.4	19.1
보통	40.1	39.0	34.8	37.2
알고 있음	28.8	38.0	28.6	31.2
잘 알고 있음	6.3	8.1	5.6	6.0

표 14. 이웃관계

(단위: %)

구분	이웃과의 의사소통	이웃의 경조사 참석	이웃의 도움 받은 경험	금전을 빌릴 수 있는 이웃
전혀 없음	2.1	9.1	10.8	24.8
별로 없음	10.6	19.4	24.1	32.6
보통	46.8	40.6	37.0	25.1
많음	35.3	27.4	23.8	15.1
매우 많음	5.2	3.5	4.2	2.4

위해서는 상당한 친밀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와 경향성은 이해가 가능하다. 종합하여 보면, 조사대상 이주여성들의 이웃관계는 40% 정도는 의사소통의 친밀도를, 20% 정도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정도의 친밀감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결정요인

(1) 분석모형

여기서는 전술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이웃관계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사회 적응에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속성 및 결혼이주 전 배경과 이주과정, 가정생활, 문화 이해와 수용 관계, 자아정체성, 사회적 지지 및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변수와 지역사회 적응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지역사회 생활,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이

웃관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 <표 15>의 독립변수를 유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stepwise multi-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즉, 지역사회 적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성분에 대하여 독립된 회귀모형(모형1-지역사회 생활, 모형2-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모형3-이웃관계)을 적용한다. 모형1의 종속변수 값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한 <표 11> 지역사회 생활에 관한 6개 항목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모형2의 종속변수는 <표 12>와 <표 13>의 지역사회에의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과 관련된 조사한 6개 항목의 5점 척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모형3의 종속변수의 값은 역시 <표 14> 이웃관계에 관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4개 항목의 평균값이다. 이에 따라 각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1~5 사이의 값을 갖는 연속형 데이터로 전환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도가 높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종속변수의 정의와 속성은 <표 15>와 같다.

표 15. 독립변수의 정의 및 속성

범주	독립변수	변수의 정의	속성
사회·인구학적 속성	거주지역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더미
	출신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더미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서열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서열
	거주기간	0~1년, 1~2년, 2~3년, 3~4년, 5년 이상	서열
	체류자격	국적취득,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자	더미
	현재 직업	무직, 농어업, 기타업종 취업	더미
	한국어 능력	5점 척도(전혀 못함 → 매우 잘함)	서열
이주 전 배경 및 이주과정	이주 전 거주지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어촌	더미
	본국에서의 직업	무직, 농어업, 단순생산·사무직, 전문직·판매유통·서비스·공무원, 학생·기타	더미
	결혼이주의 본인의사 반영정도	5점 척도(전혀 반영 안됨 → 전적인 본인의사)	서열
	이주 준비기간	1개월 미만 1~3, 3~6, 6~12개월, 1년 이상	서열
	배우자를 만난 계기	본국에서 직접, 결혼중개업체 소개, 기타방법	더미
가정생활 및 배우자	가정생활 적응 정도	5점 척도(전혀 적응 못함 → 매우 잘 적응)	서열
	배우자 직업	무직, 농어업, 단순생산·사무직, 전문직·판매유통·서비스·공무원, 학생·기타	더미
	배우자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미
	배우자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서열
문화이해 및 수용	이주 전 한국 지식	5점 척도(전혀 모름 → 매우 잘 알았음)	서열
	이주 전 한국 교육	5점 척도(전혀 없었음 → 매우 잘 받았음)	서열
	이주 전 한국 이미지	5점 척도(매우 부정적 → 매우 긍정적)	서열
	한국문화 친밀성	5점 척도(매우 소원 → 매우 친밀)	서열
자아정체성	한국인 정체성	5점 척도(전혀 없음 → 매우 강함)	서열
	본국인 정체성	5점 척도(전혀 없음 → 매우 강함)	서열
	지역주민 정체성	5점 척도(전혀 없음 → 매우 강함)	서열
	정체성 혼란	5점 척도(전혀 없음 → 매우 혼란)	서열
사회적지지 및 네트워크	친한 지역주민 수	0명, 1~2명, 3~5명, 6~9명, 10명 이상	서열
	국내 한국인 친구 수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친구의 수	등간
	국내의 출신국 친구 수	국내에 거주하는 같은 출신국가의 친구 수	등간
	참여하는 주민모임 유무	있음, 없음	더미
	도움 받는 지원단체 수	없음, 1개, 2~3개, 3~5개, 5개 이상	서열

(2) 분석결과

① 모형1: 지역사회 생활 적응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모형에는 지역주민 정체성, 출신국가(중국, 캄보디아), 국내의 한국인 친구 수,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의 정도, 이주 전 거주지역 등 7개의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²=0.600이므로 연구대상 결혼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생활적응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F-value와 Signif F는 이 회귀모형이 유효함을 말해준다. 회귀계수를 표준화하여 각각 회귀계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베타 값)을 보면, 지역주민 정체성이 0.403으로 가장 중요성이 크고 다음으로는 출신국가(중국), 국내 한국인 친구의 수 등의 순이다. 이 설명변수들은 회귀계수의 유의성 또한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다(t-값 참조).

이 분석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적응에서 이주여성이 지역주민으로서 강한 정체성을 가질수록 지역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출신국가 측면에서는 중국계 여성들의 지역사회 생활 적응도 높은 것을 보여준다.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여성들 역시 지역사회 생활적응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출신국가의 여성들은 지역사회 생활적응에 그들의 국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계 여성의 적응도가 높은 것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유사성도 있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캄보디

아 출신의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 적응도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정적응은 사회적응에 대한 하나의 설명변수가 된다. 이 분석결과에서도 가정생활의 적응 정도가 지역사회 생활적응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주 이전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이주 후 한국에서 지역사회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 역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이 분석결과국내 한국인 친구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변수들은 모두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나 이주 전 배경으로 이주 전 거주지는 부(-)의 회귀계수 값을 갖는다. 이는 이주 전 본국에서 중간급 규모의 도시에 살았던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들의 현재 거주지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여 보면,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가정생활이 원만하며,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학력, 직업,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속성과 본인의 연령, 학력, 직업, 체류자격,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지역사회 생활 적응에 유효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

표 16. 지역사회 생활 적응의 결정요인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지역주민 정체성	.270	.403	4.528	.000
출신국가(중국)	.417	.383	4.651	.000
국내 한국인 친구 수	.057	.334	3.842	.000
가정생활 적응 정도	.173	.218	2.580	.000
이주 전 한국 지식	.134	.236	2.907	.012
출신국가(캄보디아)	.867	.188	2.302	.005
이주 전 거주지(중도시)	-.215	-.186	-2.217	.025

R²=0.600 F=13.692 Signif F=0.000

② 모형2: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적응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에 대한 분석모형에는 앞의 모형1의 결정요인 외에 참여 주민모임의 유무, 한국에 거주하는 같은 출신국의 친구 수, 배우자의 연령과 직업, 본인의 본국에서의 직업 등이 추가되어 총 9개 요인이 유효한 변수로 투입되었다. 이 변수들은 조사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에 대하여 60.4%의 설명력을 갖는다.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이들 설명변수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주여성이 참여하는 주민모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회귀계수로 볼 때, 참여하는 주민모임이 있을 경우 5점 척도의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의 적응도가 약 0.5가량 높아진다. 다음으로는 출신국가(캄보디아), 출신국가(중국), 국내 한국인 친구의 수 등의 순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본국 출신의 친구의 수와 국내 한국인 친구의 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 친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의 공간인지 또는 공간활동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가정생활의 적응 정도가 투입변수에서 제외되는 대신 배우자의 연령, 직업 변수가 결혼이주여성

이 지역사회의 공간을 인지하고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상대적 중요성은 낮지만 이주 전 본국에서의 본인 직업도 다소나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일 경우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적응에 유효한 설명변수이기는 하지만, 부(-)의 회귀계수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이주한 여성들의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석에서는 배우자를 본국에서 배우자를 직접 만나 결혼이주한 경우나 기타 방법에 의한 결혼이주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에 영향력이 있는지 판별되지 않지만,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주한 여성들의 적응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유의해 볼 만한 사실이다.

③ 모형3: 지역사회 이웃관계 적응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이웃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배우자의 직업,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본인의 연령, 이주 전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 거주지역

표 17.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적응 결정요인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참여하는 주민모임 유무	.532	.356	4.094	.012
국내 출신국 친구 수	.016	.175	1.815	.074
출신국가(캄보디아)	2.229	.353	4.256	.000
배우자를 만난 계기 (결혼중개업체의 소개)	-.375	-.195	-2.319	.024
국내 한국인 친구 수	.070	.302	3.197	.002
출신국가(중국)	.464	.311	3.460	.001
배우자의 연령	.032	.264	2.989	.004
배우자의 직업(전문직· 판매유통·서비스·공무원)	.395	.211	2.567	.013
본국에서 직업 (단순생산직·단순사무직)	.322	.205	2.317	.024

R²=.604 F=10.528 Signif F=0.000

표 18. 이웃관계 결정요인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지역주민 정체성	.208	.310	3.496	.001
배우자의 직업(전문직 · 판매유통 · 서비스 · 공무원)	.644	.360	4.113	.000
이주 전 한국 이미지	.266	.275	3.098	.003
연령	.291	.307	3.462	.001
이주 전 본국에서 한국 교육	.201	.299	3.416	.001
배우자를 만난 계기 (본국에서 직접 만남)	.365	.232	2.661	.009
거주지역(경북)	.338	.180	2.020	.047

R²=0.454 F=9.149 Signif F=0.000

(경북) 등 7개 요인이 유효한 설명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5.4%로 앞의 모형들에 비해 낮지만, F=9,149, Signif F=0.000으로 모형의 유효성은 있다.

표준화 계수로 볼 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가장 큰 설명변수는 배우자의 직업과,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본인의 연령, 이주 전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등이 다음으로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이웃관계에 배우자의 직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우자의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및 사회적 연결망이 긍정적 효과를 갖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웃관계에도 역시 배우자를 만난 계기가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는 모형2와 달리 본국에서 직접 만남 경우로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져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본인의 연령 또한 유효한 변수가 되고 있다. 연령 변수는 회귀계수 값이 양(+)이므로 나이가 많은 이주여성이 젊은 이주여성보다 이웃관계 적응력을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수록 이웃관계의 적응도 높아지는데, 그만큼 이웃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형의 분석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현재의 거주지역이 상대적 중요성은 낮지만 유효한 변수로 투입된 점이다. 경북이 가진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생

각되지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④ 종합고찰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해 모두 18개의 변수가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 중에서 16개의 변수가 지역사회 적응에 양(+), 즉 긍정적 효과가 있고, 이주 전 본국에서의 거주지(중도시)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이주, 2개의 변수가 부(-), 즉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적응에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출신국가(중국, 캄보디아), 배우자의 직업,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국내의 한국인 친구의 수 등 6개 변수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효 설명변수들은 대부분 주어지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향상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 변수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출신국가, 본인의 연령과 직업, 이주 전과 이주 후의 거주지역,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과 연령 등 모두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능력이 유효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어 구사능력이 지역사회 적응에 결정적이지 않을 뿐더러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더라도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이

표 19. 지역사회 적응의 결정요인 종합고찰

범주	설명변수	지역사회 생활	공간인지 및 활동	이웃관계
사회·인구학적 속성	출신국가(중국)	○	○	
	출신국가(캄보디아)	○	○	
	본인의 연령			○
	현 거주지역(경북)			○
이주 전 배경 및 이주과정	이주 전 본국 거주지(중도시)*	○		
	본국에서의 직업		○	
	배우자를 만난 계기(중개업체)*		○	
	배우자를 만난 계기(직접 만남)			○
가정생활 및 배우자	가정생활 적응 정도	○		
	배우자의 직업		○	○
	배우자의 연령		○	
문화수용 및 이해	이주 전 한국 이미지			○
	이주 전 한국 지식	○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교육			○
자아정체성	지역주민 정체성	○		○
사회적 연결망	참여하는 주민모임 유무		○	
	국내 한국인 친구 수	○	○	
	국내 출신국 친구 수		○	

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기대하는 만큼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문제이다.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은 참여 주민모임의 유무라든가, 국내 한국인 친구 수, 한국에 거주하는 같은 출신국 친구의 수 등이 유효한 설명변수로 투입됨으로써 본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원단체, 지원기관과 관련된 변수는 적어도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 하나는 이와 같이 유효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가 이주여성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여성 지원단체 또는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이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귀모형에서 유효한 설명변수로 투입된 변수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한국으로의 이주 후보다는 이주 이전의 변수들이 많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16개의 변수 중 출신국가, 본국에서의 직업,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 이주 전 한국에서 대한 이미지, 이주 전 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교육 등 7개의 변수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변수들이다. 환언하면, 이주 후에는 통제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변수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 결과는 우선 한국으로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 후에는 이주여성들이 가정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사회적 연결망으로서 지역주민 모임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인 친구를 만들어 주거나 같은 출신국 친구

를 소개하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신도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볼 때, 특히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4. 결론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 여성의 급증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은 이러한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많은 경우 소수 개별 사례 중심의 면담을 통한 미시적 접근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심층적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국내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가정생활에 적응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혼이주 여성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전국 6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인구학적 속성, 결혼이주 전 배경 및 이주과정, 가정생활 및 배우자 특성, 문화이해 및 수용, 자아정체성,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연결망 등 6개 범주, 30개 설명변수와 지역사회 적응을 구성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이웃관계 등 3개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생활에 대해서는 출신국가(중국, 캄보디아), 이주 전 본국에서의 거주지, 가정생활의 적응 정도, 결혼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 지역주

민으로서의 정체성, 국내의 한국인 친구 수 등 7개 요인이 유효한 설명변수로 추출되었다. 공간인지 및 공간활동에 대해서는 출신국가(중국, 캄보디아),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로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것인지의 여부, 배우자의 직업과 연령, 참여하는 주민모임의 유무, 국내의 한국인과 출신국의 친구 수 등 9개 변수가 유효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이웃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가 본국에서 직접 만난 것인지의 여부,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 배우자의 직업 등 7개 변수가 유효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적응의 설명변수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국어 구사능력은 오히려 유효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한국어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분석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과 이주 후에는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 적응을 결정하는 여러 유효 변수들이 이미 이주 전에 결정되거나 인위적인 노력으로 개선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사회 생활에 가정생활의 적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한국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적응이 보다 더 쉬워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정체성 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느냐, 본국인으로 인식하느냐는 지역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인으로 인식하든, 본국인으로 인식하든, 나아가 한국인과 본국인 사이에 정체성을 갖든,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을 갖느냐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 적응이란 차원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적응의 유효한 요인으로 추출된 변수 가운데 해석이 어려운 것이 몇몇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면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주

- 1) 무응답자는 제외함(이하, 다른 통계표에서도 무응답자는 제외함)

참고문헌

구자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애령, 1998, 충남 거주 조선족 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담론* 201 11(2), pp.103-138.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 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민경자, 2003,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200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pp.151-179.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pp.101-142.
 윤형숙, 2004a,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논문발표자료집, pp.1-25.
 윤형숙, 2004b,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업 등* (편), *한국의 소주자, 실태와 전망*, 한울.
 이재민·황선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3, pp.61-84.
 이해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pp.73-106.
 이희연, 2003, *인구학 -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 법문사.
 장인협·오세란, 1996, *사회복지 체제론, 사회복지실천연구 소*.
 정일신, 2006, “길찾기 -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2006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한국, 대만, 베트남, 일본에서의 경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pp.125-143.
 정천석·강기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pp.5-23.
 정현주·이주희, 2009, “자폐아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 pp.167-200.
 채병희,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정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경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修琢, 2007, 교외활동을 통해서 본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와 정착 - 대구시를 사례로 -,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and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pp.303-332.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68.
 Ghoshen, B. A., 1991, “Spatial environment and social adaptation in Japan - a traveler's perspective,” *Focus* 41(4), pp.19-22.
 Keilty, B. and Galvin, K. M., 2006, “Physical and social

adaptations of families to promote learning in everyday experience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6(4), pp.219-233.

Neto, F., 2002, “Social adaptation difficulties of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0(4), pp.335-346.

St-Hilaire, A., 2002, “The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of Mexican immigrants: educational aspirations beyond junior high school,” *Social Science Quarterly* 83(4), pp.1029-1043.

Ward, C. and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3), pp.329-343.

교신: 임석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53-850-4101, 이메일: shyim@daegu.ac.kr

Correspondence: Seokhoi Y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ilyang, Gyeongsan, Gyeongbuk 712-714, Korea, Tel: 053-850-4101, E-mail: shyim@daegu.ac.kr

최초투고일 2009년 9월 5일
최종접수일 2009년 12월 24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2, No.4, 2009(364~387)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daptation to Their Communities*

Seokhoi Yim**

Abstract : Female marriage immigrants have increased since the mid-1990s in Korea. Thus,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has been a big social issue in Korea. There are a lot of academic researches on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so far. We cannot sufficiently understand general main factors of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because of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studies on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ularly,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adaptation to their communities. This study analyzes determinan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daptation to their communities, using stepwise multi-regression. Data a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survey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Seoul, Gyeong-gi, Daegu, Gyeong-buk, Gwangju, Jeon-nam. Dependent variables are community life, spatial cognition and activities, and neighborhood relationship. Each dependent variable is analyzed with 30 independent variables through stepwise multi-regression. As a result, 16 positive determinants and 2 negative ones are selected. Positive determinants are resident identity, age, adaptation to home, number of Korean friends and same nationals' friends in Korea and so on. But, Korean language fluence is not selected as a significant factor. This is different from a general recognition. As exiting researches, the importance of social network and adaptation variables is also identified in this study.

Key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social adaptation, community, female marriage migra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7-322-B00024)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